

# “창업·시제품 제작 장비 빌려드려요”

### 광주 스마트미디어센터, 입주기업에 창업공간 지원 등 혜택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 영상 스튜디오 등 창작공간 무료 제공

기술창업의 핵심은 '시제품'이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장비와 제작 공간이 필요하다.

예비 창업자가 비용 부담없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무료 공간·장비를 제공하는 기관을 소개한다.

◇광주스마트미디어센터(가상현실(VR) 미디어 또는 스마트 미디어 분야 창업을 꿈꾸는 이는 '스마트미디어센터' 문을 두드리면 된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남구 송암동 광주CGI센터 3층에 있는 '스마트미디어센터'에 33㎡ 규모 창업공간 7개실을 운영하고 있다.

26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11월 현재 13개 기업이 '스마트미디어센터' 공간에 입주한 상태다. 5개 기업은 스마트

미디어센터에 상주하고 있고 8곳은 소프트웨어(SW)융합클러스터 창업랩을 공동 사용하고 있다.

입주 기업들은 1년 단위 계약을 맺고 최대 2년 동안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가상현실 AR·VR·MR 분야 ▲스마트기기 활용 SW, 플랫폼 등 개발 ▲가상현실 기기 활용 콘텐츠·교육 ▲스마트 콘텐츠 개발 등으로 다양하다.

스마트미디어센터에 등지를 둔 기업들은 24시간 운영하는 입주공간과 첨단 장비, 창업 교육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고프로, VIVE 등 테스트베드 장비와 공용 사무기기 이용 기회와 일대 일 멘토링, 법률·특허·마케팅 지원, 투자유치를 위한 '데모데이', 전시 참가자격 등도 포함된다. 이곳에 입주하려면 ▲사업아이템(30점) ▲개발자의 자질 및 수행의지(20점) ▲사

업계획의 타당성(20점) ▲사업화 가능성(20점) ▲입주신청의 적절성(10점) 5개 항목의 심사를 받게 된다. 입주 모집 공고는 2개실 이상 비워지면 홈페이지(gitc.or.kr)에 게재된다.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 광주·금남로 한복판에서도 개인 작업실을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해 문을 연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 광주'에 자리잡은 8개의 작업 공간(아틀리에)을 통해서다. 입주 창작공간 아틀리에에는 파트너 스퀘어 광주에서 처음 도입됐다. 아틀리에에는 1~2기 14개팀의 광주 청년들이 거쳐갔다.

입주자들은 6개월(최장 1년) 동안 창작 공간을 무료 지원받으며 ▲사진촬영, 저작권, 블로그 활용 등 전문 교육 ▲일대 일 및 총 컨설팅 ▲프로필 영상 제작 ▲네이버 온라인 홍보 ▲플리마켓·기획전 지원 등을 받는다. 또 생방송이 가능한 사진 촬영·영상 제작 전용 스튜디오와 녹음실, 편집실, 회의 공간, 전용 카페도 사용할 수 있다.

파트너 스퀘어 광주는 푸드 및 리빙 비즈

니스에 특화돼 있지만 아틀리에 부문에는 제한이 없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 광주 홈페이지(partners.naver.com/gwangju/ateli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이플렉스 광주·'광주청년창업 메카'를 내건 동구 동명동 '아이플렉스 광주'도 총 면적 7446㎡에 달하는 46개 공간을 청년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11월 현재 이곳 입주율은 100%로, 최초 계약기간은 3년이며 이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임차료는 층마다 다르며, ㎡당 2만5000원 상당의 연 관리비는 전액 면제된다.

'아이플렉스'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R&D기획 ▲기술사업화(패키지) ▲경영지원바우처 지원 등 사업당 지원액은 최대 200만~500만원에 달한다. 또 3D프린터로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비즈 스튜디오'와 투자 상담실, 회의실, 휴게실, 구내식당 등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기업 공공조달시장 교육 강화

### 광주조달청, 사업전반 설명

### 광주·전남 기업 돕기 나서

광주지방조달청이 광주·전남지역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

26일 광주조달청은 "전남 농공단지 입주업체 30여 개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22일 청사에서 조달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공공조달시장 진입·납품 방법을 소개하고 조달청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같은 달 12일에는 지역 80여 개 기업, 광주·전남도도와 함께 기술혁신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유망기업-공공기관 간 네트워크 및 컨설팅 워크숍'을 진행했다.

박상철 광주조달청장은 지난 25일 화순군에 있는 중소기업 휴먼썬을 찾았다. 조달청은 지역 산업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휴먼썬은 디자인형 울타리, 목재판재 등 생산 업체로, 조달청과 계약을 통해 최근 3년간 공공조달 시장에서 약 73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박 청장은 "기술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을 기반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신보 호남본부, 전통공연 진행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와 사회적기업 행복예술단주는 지난 25일 광주서구청 대강당에서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회문화공연을 진행했다. <신보 호남본부 제공>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청년 일자리 사업 강화

### 청년 내일로 참가자 모집

### 콘텐츠 리쇼어링 사업 추진도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사진) 일자리추진단이 내년 청년 일자리 사업을 강화한다.

26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일자리추진단은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하나인 '전남 청년 내일로 사업'에 대한 내년 참여기관과 참가자를 오는 12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3년째를 맞은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는 22개 시·군 지자체로부터 수행기관을 모집한 뒤 청년근로자에게 공공형 일자리 경험을 주고 있다.

청년근로자에게는 월 200만원의 인건비



와 활동수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일대 일 직무상담·취창업 컨설팅·성과 관리리치 등을 지원한다.

또 내년 신규 사업으로 '콘텐츠 리쇼어링 사업'을 추진한다. 진흥원은 지역 청년 100여 명을 선발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2D·3D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전문인력으로 키

운다는 계획이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추진한 '청년 일자리 사업'에는 올해까지 600명이 참가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추진한 일자리 사업은 ▲청년 내일로 ▲향토자원 청년창업 지원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 등이 있다. '내일로'에 참여한 기관은 300곳을 넘었고, 전남 8개 시·군 청년 22명은 '향토자원 창업'을 통해 창업의 꿈을 이뤘다.

양선희 일자리추진단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좋은 일자리 창출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신규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일자리추진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조계현 원장의

## 특 특 창업이야기



### 창업규모 커지면 기회도 위기도 빨리 온다

대형음식점, 대형마트, 대형스포츠센터, 대형학원 등 대형점포 창업은 예비창업자들에게 상당한 기대감과 동시에 부담감을 주는 규모의 창업형태다.

대형점포 창업이라는 규모의 창업에 도전하는 예비창업자들의 유형은 크게 두 그룹이다.

첫 번째는 가장 흔한 경우로 소형, 중소형, 중형, 중대형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 과정에 충분한 노하우를 쌓은 기존 자영업자들이 확장형 창업형태로 도전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의외로 처음 창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자금력을 갖춘 초보 예비창업자들도 대형점포 창업에 도전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해당 업종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를 영입하였거나 경험은 부족하나 본인 스스로 해당 업종의 창업에 대한 이해와 자신감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대형점포 창업은 주체 기준으로 보면 경험 많은 자영업자가 도전하는 확장형 대형점포 창업과 경험 없는 초보자의 패기형 대형점포 창업으로 볼 수 있다.

전자의 창업형태의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해당 업종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었기에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리스크(위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있는 경험과 역량을 가졌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기존 고정고객의 유치가 용이하여 초기부터 안정적인 매출기반이 빠르게 조성된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검증된 직원들의 보유로 인한 안정적인 고객서비스와 매장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후자의 창업형태의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다양한 벤치마킹을 통한 좀 더 과감하고 트랜디한 매장의 구성과 운영전략을 짤 수 있다. 두 번째는 경험은 부족하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아서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홍보마케팅과 운영을 하는 경향이 많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수시로 고객의 니즈(수요)를 반영하여 실시간으로 변화를 꾀하는 빠른 변화의 속도다.

창업형태에 따른 큰 장점을 살펴본 이유는 단점의 경우는 전자의 경우의 장점이 후자의 경우의 단점이고 후자의 경우의 장점이 전자의 경우의 단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형별 장점이 단점까지 설명하고 있는 셈이다. 다음은 대형점포 창업시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대형점포 창업은 중소형 규모의 창업과 다르게 임대료나 인건비 등에서 높은 고정비용을 수반한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사업이 잘 안되면 높은 고정비용의 늪에 빠져 위기도 빠른 속도로 찾아온다. 그래서 창업 초기에 빠른 속도로 손익분기점을 통과하지 못하면 운영자금의 부족이나 고갈이라는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의 점포의 상권과 입지가 접근성과 가시성이 매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만 대형점포의 경우에는 매출에 영향일 주는 주요 요인으로 접근성과 가시성에 추가로 안정적인 규모의 주차장 확보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안정적인 운영자금의 확보 그리고 적극적으로 디테일한 모객마케팅 역량이라는 속제가 더 주어진다. 이런 조건들이 부합하지 않은 상태라면 대형점포의 창업은 중소형 점포의 창업 보다 리스크가 몇 배는 더 크고 빠르게 다가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중소형 점포를 운영하는 대개의 자영업자들에게 대형점포는 최종 목적이자 이루고 싶은 꿈의 창업형태다.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녹아든 부정적인 경기지표와 근로복지 중심의 정책변화로 인한 고정비용의 증가로 인해 대형점포 창업에 대한 기대 보다는 리스크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는 시기기에 대형점포 창업은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을 갖고 신중히 임해야 한다. <한국지역산업연구원 원장>

#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